

2026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조상의 덕을 기리며, 올해 지나온 날을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예식의 말씀 / 인도자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 다 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 다 같이,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 주 언제 강림 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 / 말은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른 봄부터 수확의 계절 가을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족과 가문이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하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시편 128편 1~6절, 말은 이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보다 3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보다 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보다 5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설교 /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말은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 128편의 말씀이 우리 각 가정과 더 나아가 가문 전체에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8편의 중심 주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은 세상이 말하는 일시적인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지속되는 복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복입니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복은 단순히 많은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만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땀 흘린 자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인간관계의 복입니다. 시편은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하며 화목한 식탁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풍경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의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 줍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넉넉해도,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무너지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가정 안에 웃음과 평안을 회복시키는 복입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사랑이 흐르는 가정이야말로 큰 은혜요 복입니다.

셋째는 신앙의 복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온에서 오는 복과 예루살렘의 번영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시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모든 관계의 심장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설 때, 삶의 모든 영역이 바르게 숨쉬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은 결국 이 세 가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정과 가문 위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28편 1절과 4절에는 반복되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복이 임합니다. 이 복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복이 아니라, 사는 내내 이어지고 가문 대대로 전해지는 복입니다. “네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은혜가 된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전혀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넘어서는가입니다. 그 갈림길 위에 복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창조와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을 받고, 누리고, 또 나누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추석 명절에, 시편 128편의 말씀이 우리 가정과 가문 위에 살아 있는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주시는 복을 기쁨으로 누리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 설교자

찬송 /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 같이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 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인을 치소서 아멘.

주기도문 /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